

영어의 ‘국민명’을 지칭하는 데모님 형성에 관한 연구*

이보림
(원광대학교)

Lee, Borim. 2009. A study on English demonymic forms of the world nations. *Linguistic Research* 26(3), 43-65. This paper examines English demonymic forms referring to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e English nationality demonyms are classified by thei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mostly depending on the classes of the suffixes used to form the demonyms. For each class of demonym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nd frequency were presented, together with its cultural and social information as well as etymological information. In addition, a limited linguistic analysis was suggested, focusing on the morpho-pho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ubcategorization regulations on the most frequently used demonym-forming suffixes, namely /-(i)an/ and /-ese/. This research aim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English vocabulary and morphology, especially for those who study English as a foreign or second language. (Wonkwang University)

Key words English demonym, allomorphs, allomorph selection, etymology, default allomorph.

1. 서론

사람의 국적을 말할 때 한국어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인’ (예: 한국인) 또는 순수 우리말로 ‘~사람’ (예: 한국사람)이라고 하며, 전 세계의 모든 국가명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영어의 경우에는 그리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어로 한국인은 *Korean*이라고 하지만 일본인은 *Japanese*, 그리고 영국인은 *English (man/ woman)*라고 한다.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는 ‘demonym’이라고 한다.¹⁾

저자가 아는 한 영어 데모님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적으로 깊이 다루어 진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어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접미사(suffix)의 이형태소(allomorphs)들이

* 이 논문은 2007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1) 이것은 그리스어 어원을 가진 단어로서 어떤 지역의 전체주민을 의미하는 ‘demos’에 이름을 의미하는 접미사 ‘-onym’이 붙어서 생긴 말이다. 이 단어는 Paul Dickson이라는 Merrian-Webster 편집인이 그의 저서인 *Labels for Locals*(2006)의 원전인 *A Dictionary for Resident Names*에서 사용하면서 알려졌고 지금도 주로 지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뿐 주요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출처: 인터넷 위키피디아 데모님에 관한 글)이 단어를 대신할 적합한 한국어 단어가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후로 ‘데모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보이는 음운-형태론적 현상이 얼핏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또 자세히 보면 각각의 경우가 너무 복잡해서 학문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본 논문은 국민명을 지칭하는 영어 데모니즘을 다양한 형태론적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보고 이러한 언어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까지 살펴봄으로써 영어 어휘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며, 나아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영어의 국민명에 사용되는 다양한 접미사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그 빈도수와 각각의 접미사의 어원과 의미, 문화인류학적 배경 등과 함께 각 종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소개한다.²⁾ 그 다음에 3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된 국민명 호칭을 만드는 접미사들에 관한 형태, 음운적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4장은 이 논문의 결론이다.

2. 영어 국민명의 종류에 따른 어원 및 배경

이 논문에서 다룬 국가명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모두 233개이고, 이중데모니즘(double forms)을 사용하는 경우 17건을 포함하여 여기에서 다루게 될 국민명 데모니즘의 총수는 250개이다.³⁾ 대부분의 데모니즘은 지명을 기본으로 파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국가의 거주민들의 이름을 따서 국가명이 생긴 경우들도 있다. 한 예를 들자면 독일(Germany)은 게르만족(Germans)의 이름에서 파생된 국명이다.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국민명 데모니즘에 사용되는 접미사는 모두 5가지 종류로서 {-i)an, -ese, -i, -er, -ish}이고, 각 종류별 빈도수는 <표1>에 제시되어 있다.⁵⁾ 표의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한 국가에 대해 이중 데모니즘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형태로 제시된 이름의 수를 말한다.

[표1] 영어 국민명 demonym의 종류별 현황

	-(i)an	-ese	-i	-er	-ish	기타	합계
demonym의 수	145(7)	25(1)	16	15	4	45(6)	250(17)

2) 영어 국민명 데모니즘의 전체 목록은 논문의 뒤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3) 여기서 다루는 국가의 숫자는 현재 세계정치상 인정되는 국가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ongolese*라는 데모니즘을 가진 국가는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와 *Congo*의 두 개 국가가 있지만 데모니즘의 경우 음운, 형태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한 개의 국가로 계산하였다. 반면에 *Dominica*와 *Dominican Republic*이라는 두 나라에 대한 데모니즘은 표면상 똑같이 *Dominican*이지만 강세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Domínican*, 후자는 *Dominican*) 두 개의 데모니즘으로 계산하였다.

4) 이러한 경우들은 접미사의 종류들을 다 제시한 후 마지막에 그 밖의 경우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5) 물론 이 외에도 필리핀(*Philippines*) 사람을 의미하는 *Filipino*의 -o, 스페인(*Spain*) 사람을 의미하는 *Spaniard*의 -ard 등이 있으나 이런 경우들은 너무 희귀해서 모두 합쳐서 예외의 경우에 포함시켰다.

demonym의 빈도	58.0%	10.0%	6.4%	6.0%	1.6%	18.0%	100%
-------------	-------	-------	------	------	------	-------	------

이제 아래에서는 국민명의 종류별로 대표적인 예들과 함께 각각의 어원과 배경을 다루기로 한다.⁶⁾ 각각의 접미사의 의미 중에서 국민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전적 의미와 용례에 대하여는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주석에서 간단히 다루기로 한다.

2.1 접미사 *-(i)an*

영어의 국민명 호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미사는 ‘-an’ 또는 ‘-ian’이다. 이 접미사의 어원은 라틴어의 *-ānus*에서 왔으며 명사에 속하는 단어를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 현대영어에서 접미사 *-an/-ian*은 「…의;…의 성질의;…사람」의 뜻을 가지며, 사전에 등재된 의미는 지명에 부가되어 그 지역 출신의 사람 또는 사물을 지칭하는 형용사 또는 명사를 형성한다고 기술되어 있다.⁷⁾ 위의 <표1>에서 보았듯이 이 종류에 속하는 국민명 데모넴이 250개 중 145개로서 가장 큰 비율(58%)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들은 아래와 같다. 예들의 세부적인 음운적 특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1) *-an/-ian* 접미사를 사용하는 국민명의 대표적인 예들

국가명	국민명
Austria	Austrian
India	Indian
Colombia	Colombian
Korea	Korean
Cuba	Cuban
Canada	Canadian
Panama	Panamanian
Tobago	Tobagonian
Samoa	Samoan
Palau	Palauan
Tuvalu	Tuvaluan
Peru	Peruvian

6) 어원과 배경에 관한 자료들은 주로 인터넷 사전(네이버, 위키피디아 사전 등)과 위키피디아에 수록된 글들의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7) *-an* 접미사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에 붙어서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나 그 사람의 작품을 지칭하는 형용사나 명사를 만들기도 한다. (예: *Shakespearean*, *Victorian* 등)

Haiti	Haitian
Italy	Italian
Paraguay	Paraguayan
Norway	Norwegian
Mexico	Mexican
Monaco	Monacan
Brazil	Brazilian
Iran	Iranian
Honduras	Honduran
Bahamas	Bahaman

2.2 -ese 접미사

-an/-ian 접미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접미사는 -ese로 250개의 국민명 중 25개의 단어를 형성할 때 사용되어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이 접미사의 어원은 라틴어의 -ēnsis로서 ‘~에서 유래된’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현대영어에서 접미사 -ese는 「…의;…말(의);…사람(의)」의 뜻을 갖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도시, 지역, 또는 국가에 속한 것들과 특성을 기술하는 형용사와 명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로서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⁸⁾ 이 접미사는 특히 대부분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나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데모넴에 사용되며 유일하게 강세를 받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비슷한 발음을 가진 불어의 접미사 -ais(ə)를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2) -ese 접미사를 사용하는 국민명의 예들

국가명	국민명
Benin	Beninese
Bhutan	Bhutanese
China	Chinese
Congo	Congolese
East Timor	Timorese
Faroe Islands	Faroese
French Guiana	French Guianese
Gabon	Gabonese

8) -ese 접미사의 이차적인 용법은 특정한 직업의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자곤(jargon)을 의미하는 명사를 형성하는 것이며 *journalese*, *legalese*, *translationese* 등의 예가 있다.

Guyana	Guyanese
Hong Kong	Hongkongese
Japan	Japanese
Lebanon	Lebanese
Macau	Macanese
Malta	Maltese
Marshall Islands	Marshallese
Nepal	Nepalese
Portugal	Portuguese
Réunion	Réunionese
San Marino	Sammarinese
Senegal	Senegalese
Sudan	Sudanese
Taiwan	Taiwanese
Togo	Togolese
Vietnam	Vietnamese
Myanmar	Myanmarese

2.3 -i 접미사

-i 접미사는 250개 중 16개의 국민명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이 접미사를 가진 국민명은 전체의 약 6%를 차지한다. 이 접미사의 어원은 알려져 있지 않고, 영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도시, 지역, 또는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술하는 형용사와 명사를 형성하는 접미사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ese*의 의미와 동일하다. 용법에 관한 사항을 보면 주로 중동지방이나 남아시아 지방의 주민명 호칭에 사용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들은 아래와 같다.

(3) -i 접미사를 사용하는 국민명 예들

국가명	국민명
Azerbaijan	Azeri
Bahrain	Bahraini
Bangladesh	Bangladeshi
Iraq	Iraqi
Israel	Israeli ⁹⁾

9) *Israel*은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데모님이며, 반면에 이스라엘인의 또 다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Kazakhstan	Kazakhstani
Kuwait	Kuwaiti
Kyrgyzstan	Kyrgyzstani
Oman	Omani
Pakistan	Pakistani
Qatar	Qatari
Somalia	Somali
Tajikistan	Tajikistani
United Arab Emirates	Emirati
Uzbekistan	Uzbekistani
Yemen	Yemeni

2.4 -er 접미사

250개의 국민명 중 15개는 -er 접미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빈도수가 -i 접미사(6.4%)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이다. 영어의 -er 접미사는 누구나 알다시피 사실상 demonym을 만드는 데보다는 동사에 붙어서 ‘~하는 사람’ 또는 ‘~하는 것’의 의미(예: *read*, *reader*)로 더 널리 쓰인다.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영어에서는 -a라는 접미사는 동사에 붙어서 ‘~하는 사람’(예: *hunta* ‘사냥꾼’, *huntan* ‘사냥하다’)을 의미한 반면에, -ware라는 접미사가 따로 있어서 지명에 붙어서 거주민, 근원, 또는 민족(예: *Lundenware* ‘런던사람’¹⁰⁾)을 나타내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현대영어에서는 고대영어의 두 가지 접미사가 모두 -er로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¹¹⁾ 국민명을 형성하는 접미사로 쓰인 -er 접미사의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은데, 전체 15개 중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명이 -land로 끝나며 또 그 중 8개는 *Island(s)*라는 단어로 끝난다.

(4) -er 접미사를 사용하는 국민명의 예들

국가명	국민명
British Virgin Islands	British Virgin Islander
Christmas Island	Christmas Islander
Cocos Islands	Cocos Islander
Cook Islands	Cook Islander

*Israelite*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과 종족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ite는 특히 미국에서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데모닉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Brooklynite*나 *Jerusalemite*와 같은 예가 있다. 또한 -ite 접미사는 또한 「...을 신봉하는 사람」의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Hittlerite*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0) 현대영어에서는 ‘Londonder(s)’라고 함.

11) -a는 /r/음으로 전환되는 과정(rhotacism)을 통해 -er로 변화되었다.

Falkland Islands	Falkland Islander
Greenland	Grelander
Hong Kong	Hongkonger ¹²⁾
Iceland	Icelander
Liechtenstein	Liechtensteiner
Luxembourg	Luxembourger
New Zealand	New Zealander
Pitcairn Island	Pitcairn Islander
Solomon Islands	Solomon Islander
Surinam	Surinamer
Turks and Caicos Islands	Turks and Caicos Islander

2.5 -ish 접미사

250개의 국민명 중 단 4개만이 -ish 접미사를 사용하며 또 그 중에 세 개는 모두 *Ireland*가 국명에 사용되는 국가들에 사용된다. 이렇듯 매우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영국인’, 또는 ‘영어’를 의미하는 단어가 *English*로서 이 접미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의 데모님을 다루는 본 논문의 특성상 하나의 단독 접미사로서 다루고자 한다. -ish의 어원은 고대영어의 -isc이며, 라틴어의 -icus, -ice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전적 의미는 위에서 본 접미사들과 대동소이하여 국가나 지역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기에 붙어서 「…의;…에 속하는; …성(性)의」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5) -ish 접미사를 사용하는 국민명의 예들

국가명	국민명
England	English ¹³⁾
Ireland	Irish
Northern Ireland	Northern Irish
Republic of Ireland	(Southern) Irish

그러나 -ish 접미사가 붙는 데모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 단어 자체는 형용사로만 사용되고 사람을 의미할 때는 *man* 또는 *woman*을 뒤에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즉, 영국인은 *Englishman/ Englishwoman*이며 아일랜드인은 *Irishman/ Irishwoman*이 된다. 반면에 *Great*

12) *Hong Kong*의 데모님은 이중 형태를 갖는데 다른 하나는 *Hongkongese*이다.

13) *England*는 앵글족(Angle tribe)가 세운 나라로 민족명에 -land 접미사를 붙여서 국명이 만들어졌다. 이런 종류의 데모님은 아래의 2.6.에서 다시 다룬다. 그러나 국민명의 경우 민족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ish 접미사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고 거기에 -man/-woman을 붙여서 데모님으로 사용하는 특이한 경우이다.

Britain 또는 *United Kingdom*의 데모님은 *Briton*이라는 명사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British*의 경우는 별개의 데모님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경우들로서 *-ish*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국명들 중에는 불규칙적인 데모님을 갖는 경우가 많다.

(6) *-ish* 형의 형용사를 갖는 국가의 불규칙적 데모님

국가명	형용사형	국민명
Great Britain (or United Kingdom)	British	Briton
Denmark	Danish	Dane
Spain	Spanish	Spaniard
Poland	Polish	Pole

2.6 불규칙적인 데모님

위에서 다룬 특정 접미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불규칙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데모님을 만드는 경우들은 총 250개 중 45개나 되어서 전체의 18%나 되며 그 중의 6개는 이중데모님(double forms)의 하나로 사용된다. 이들 중 먼저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데모님 들끼리 함께 묶어서 소개하고 그 뒤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데모님들의 경우는 특별한 언급이 필요한 경우들만 선택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특히 눈에 띄는 경우가 국명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 국민명 데모님을 만들어내는 경우로서 탈락되는 부분을 보면 {-land, -stan, -ia}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예들을 보자.

(7) 어기의 뒷부분을 잘라내어 만드는 불규칙한 데모님

국가명	국민명	이중데모님
ㄱ. Finland	Finn	
Poland	Pole	
Scotland	Scot ¹⁴⁾	
Swaziland	Swazi	
Switzerland	Swiss	
Thailand	Thai	
ㄴ. Afghanistan	Afghan	
Kazakhstan	Kazakh	

14) *Scotland*과 연관된 형용사에는 *Scottish*와 *Scotch* 두 가지가 있는데 *Scotch*는 *Scotland*에서 만들어진 음식과 음료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Scottish*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식 이외의 경우에 *Scotch*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매우 고어적인 느낌이 있거나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한다.

	Kyrgyzstan	Kyrgyz	
	Tajikistan	Tajik	
	Uzbekistan	Uzbek	
	Turkmenistan	Turkmen	
ㄷ.	Croatia	Croat	Croatian
	Mongolia	Mongol	
	Serbia	Serb	Serbian
	Slovakia	Slovak	
	Slovenia	Slovene	Slovenian

흥미롭게도 잘라지는 부분인 {-land, -stan, -ia}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땅 또는 지역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그 자체가 접미사로 사용되어 국가명을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많은 경우처럼 국명에 접미사가 붙어서 국민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거꾸로 국민명에서 국가명이 파생된 것임을 뜻한다. 접미사로서의 이 형태소들의 어원을 살펴보면 *-land*는 모두 알다시피 땅이라는 뜻인데 게르만어족(Germanic languages)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흙’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stan*은 페르시아어로 ‘~의 지역’을 의미하며 그 뿌리는 원시 인도유럽어족(Proto Indo-European language)의 **stā-*이며 ‘서다(stand)’의 의미를 갖는다.¹⁵⁾ 이 접미사를 가진 국가들은 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으로 고대 인도-이란인들이 정착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ia*의 어원은 라틴어 *-ia*와 고대 그리스어 *-ia*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본래는 여성형 추상명사를 만들 때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영어에서는 국가나 질병, 꽃 등의 이름을 만들어 낼 때 사용되는 접미사의 역할을 하는 형태소이며 대표적인 예로서 *Utopia*를 들 수 있다. *Utopia*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가상의 섬의 이름으로서 고대 그리스어의 ‘아닌’ 또는 ‘없는’을 의미하는 *ou*와 ‘장소’ 또는 ‘지역’을 의미하는 *topos*에 *-ia*가 붙어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국민명에서 국가명이 파생된 또 다른 경우들도 있는데 위의 경우처럼 국민명에 접미사를 첨가하여 국가명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 어휘 형성 과정이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몇 가지 예로 *Germany*는 게르만족(Germans)이, *France*는 프랑크족(Franks)이 그리고 *Denmark*는 데인족(Danes)의 이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불규칙적인 국가명과 데모님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명, 형용사형, 데모님을 지칭하는 어휘가 영어와 본국의 언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로,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은 원래 스페인어로 은의 땅(*Tierra Argentina*)이라는 의미에서 왔는데, 영어에서는 스페인어에 기초한 *Argentina*는 국명으로 동일 단어의 영어식 형태인 *Argentine*는 데모님과 형용사형 두 가지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 드

15) 런던사람을 지칭할 때 보통은 *Londoner*라고 하지만 간혹 *Londonistan*이라는 표현도 발견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비꼬거나 풍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물게 *Argentinian*이라는 데모님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Argentine*에 데모님을 만들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ian* 접미사를 덧붙여서 파생된 단어이다. 또한 브라질(Brazil)은 포르투갈어로 *pau brasil* (pau ‘나무’, brasil ‘붉은 잿빛’-고대 포르투갈어 철자는 ‘brazil’)에서 파생되었는데 브라질 토종인 나무 이름에서 형용사로 사용되던 단어가 형용사의 성격은 잃어버린 채 국명으로 사용되게 된 반면 이 국명에 다시 접미사 *-ian*이 붙어서 형용사 및 데모님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필리핀(Philippines)의 국명은 스페인의 필립 2세(King Philip II)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영어에서 사용할 때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와는 반대로 영어식 이름은 국명으로, 스페인어식 남성 명사인 *Filipino*는 데모님 및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데모님을 사용하는 한 예로 *Greek*과 *Grecian*을 들 수 있는데, 둘 다 그리스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형용사로 사용될 때에는 *Grecian*은 건축·미술·사람의 얼굴 등에 대해 사용하며, 그 외에는 *Greek*을 쓴다. 또한 토착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가 영어의 데모님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Kiribati*의 데모님은 *i-Kiribati*, *Vanuatu*는 *ni-Vanuatu*, *Lesotho*는 *Basotho*인 경우이다. 이 중에서 *Basotho*는 *Lesotho*의 국어이며 반투어(Bantu)인 *Sesotho*어로 *Sesotho*를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인은 보통 *American*이라고 하지만 *America*라는 단어가 북아메리카와 남(라틴)아메리카를 통칭하는 단어임을 생각할 때 보다 제한적인 단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United Statian*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스페인어, 불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 등에서는 영어의 *United Statian*에 준하는 자국어 단어를 미국인을 지칭하는 데모님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독일어에서는 *US-American*에 준하는 단어인 *US-Amerikaner*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문화적인 측면은 언어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데모님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3. 영어 국민명 어휘형성의 형태, 음운론적 분석

3.1 이형태소 선택

영어 국민명 어휘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는 것을 2장에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영어 데모님 형성 과정을 형태-음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위에서 보았듯이 동일한 종류의 어휘, 즉 데모님을 형성하는 방법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한 가지 방식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불규칙한 경우들은 접어두고, 우선 접미사를 첨가하여 데모님을 만드는 경우만 보더라도 접미사의 종류가 5가지나 되는데 각각의 이형태소(allomorphs) 사이에는 음운적인 연관성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형태-음운적인 규칙 또는 제약들을 사용한다하더라도 그 표면형을 모두 일관성있게 예측해 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종래의 규칙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분석이나 90년대 이후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제약에 기반을 둔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 Prince and

Smolensky 1993, McCarthy and Prince 1993)에 의한 분석 두 가지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다. 규칙에 기반을 둔 분석에 의하면 여러 이형태소 중의 한 가지 형태소를 기본형으로 보고 일련의 규칙들을 사용해서 각각의 표면형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영어의 데모님 접미사의 이형태소인 {-an/-ian, -ese, -i, -er, -ish}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an/을 기본형으로 본다면 기본형에서 /-ian/을 도출하는 것은 모음 /i/를 삽입하는 간단한 규칙으로 가능하겠지만 그 밖의 다른 이형태소들의 경우는 수많은 억지스러운(*ad hoc*) 특수 규칙들과 제약들을 동반해야만 할 것이다. 최적성이론 안에서 '기본형의 풍요'(Richness of the Base: Tesar and Smolensky 1998)라는 개념을 이형태소 선택의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모든 이형태소가 입력형(input)에 어기(base)와 함께 제시되고 충실성/유표성 제약들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각각의 어기에 가장 적합한 이형태소가 출력형에서 선택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각 이형태소의 선택이 단순히 음운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적성 이론적 분석 역시 많은 임시변통의 특수한 제약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 데모님의 접미사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접미사의 이형태소들 사이의 음운적, 어휘적인 차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2장에서 보았듯이 특정한 접미사는 특정한 지역에 분포하는 국가의 이름에 붙어서 데모님을 만들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 보다 큰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영어 데모님 어휘 형성에 있어서 이형태소 선택의 문제는 어떤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석의 틀을 사용하든지 모종의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 규정을 두어서 특정 어기는 특정 접미사와 매치되도록 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⁶⁾ 즉, 각각의 이형태소마다 필요한 어휘, 의미적 정보를 하위범주로 정하여 (8)과 같이 표시한다. 예를 들어, /-ese/ 접미사는 [+동아시아, 불어권]이라는 하위범주 규정이 있으므로 이 접미사는 어기의 특정 국명이 자신의 하위범주 규정에 적합할 경우 접사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n/ 또는 /-ian/ 접미사를 하위범주 규정이 없는 그 밖의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디폴트(default)로 가정하는데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은 아래의 음운론적 분석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¹⁷⁾ 그리고, 다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불규칙한 데모님의 경우는 어휘적 보충법(suppletion)의 경우로서 각각의 어휘마다 특수한 표시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8) 영어 데모님 형성 접미사와 하위범주 규정 /-ese/: [+동아시아, 불어권]

16) 이 분석은 Kim(2006)의 한국어의 접미사 중심의 이형태소 선택 분석을 응용하였다. Kim의 접미사는 음운적 정보를 하위범주로 갖는 반면 여기서는 어휘, 의미적 정보가 하위범주로 표시된다. 이렇게 독립된 이형태소 선택의 단계를 설정하는 연구는 Kim 외에도 Lapointe(1999)가 있다.

17) '디폴트 이형태소(default allomorph)'는 Lee(2008)가 언어보편적인 제약으로 제안하였는데 언어보편적인 음운적 단순성에 의거한 제약으로서, Lee는 디폴트 이형태소가 이형태소 중에서 음운적으로 보다 간단한(simpler) 이형태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디폴트 이형태소는 Lee(2008)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형태소에 비해 음운적으로 더 간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i/: [+중동, 남아시아]
 /-er/: [+land]
 /-ish/: [+England, Ireland]
 /-an/ 또는 /-ian/: []

3.2 이형태소 선택 후의 음운적 현상

접미사의 하위범주 규정에 따라 적합한 어기와 접미사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형태소 경계에서 형태-음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특히 *-an*으로 끝나는 접미사의 경우에 여러 교체형(alternative forms)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 경우에 집중하여 예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위의 (1)에 제시된 데모님들은 모두 *an*으로 끝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부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 구조의 유형별 종류와 그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9) ~an을 끝나는 데모님의 유형별 내부 구조와 빈도수

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¹⁸⁾

어기	+	접미사	표면형	빈도수
~ia		-an	~ian	48
~a		-an	~an	27
~V[a]제외		-an	~an	20
~{n,d}a		-ian	~C(a)ian	7
~o		-an	~an	4
~V		-C+ian	~Cian	4

ㄴ.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

~C	-ian	Cian	22
~C	-an	Can	2
~Vs	-(i)an	~ian	9
기타			2

합계: 145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들을 우선 보면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의 경우에는 접

18) /a/로 끝나는 어기의 경우 접미사 /-n/이 붙는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분석의 단순성을 위하여 접미사를 /-an/과 /-ian/ 두 개로 한정하고 형태소 경계에서 /a/ 두 개가 겹쳐질 경우 하나의 /a/가 표면에 나타난다는 입장을 택한다.

미사 /-an/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빈도수는 87%에 달한다. 반면에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접미사 /-ian/이 첨가된다(약 63%)고 볼 수 있다. /a/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의 경우 /-an/ 접미사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접미사의 모음 /a/는 단순히 자음과 자음의 사이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모님 접미사의 일부로서의 굳건한 지위가 있는 분절음임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흥미 있는 것은 만약에 /-an/이 데모님 접미사의 기본형이라면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의 경우 /-an/ 접미사만 붙으면 충분할 것인데 이렇게 /-an/만 붙는 경우는 2건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ian/이라는 표면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내부 구조를 무시하고 표면형만 볼 때 ~ian 유형은 145개 중 106개나 되며 ~an형은 39개에 불과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06개의 ~ian 유형 중에서 /i/가 어기에서부터 존재하는 경우는 65개이고 나머지 41개에 나타나는 /i/는 접미사에서 연유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운적인 동기가 없는 /i/ 모음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어기와 접미사의 경계를 잘못 분석함으로써 생긴 그릇된 분석(misanalysis)으로 인한 새로운 접미사의 출현이라고 주장한다. 즉, ~ia로 끝나는 어기(국명)의 빈도가 높다보니 데모님에 나타난 -ia를 어기의 일부가 아닌 데모님 형성 접미사의 일부로 잘못 인식한다는 것이다.¹⁹⁾

이제 위의 (9)에서 예외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a/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접미사 /-an/이 사용되는데, 예외적으로 /-ian/이 사용되는 경우가 7건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모두 어기의 마지막 분절음 /a/에 선행하는 자음이 /n/ (4건) 또는 /d/ (3건)라는 사실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영어 데모님에 */~nan/ 또는 */~dan/과 같은 OCP 유형의 제약을 설정해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영어 데모님에 /~dan/ 유형이 4건, /~nan/ 유형도 2건 존재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음운적인 제약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국명 중에 /-ian/을 접미사로 취하면서 어기와 접미사 사이에 특별한 자음을 삽입하는 경우가 4건 있다. 그 예들을 살펴보자.

(10) /-C+ian/ 접미사

국가명	국민명
Norway	Norwegian
Peru	Peruvian
Tobago	Tobagonian
Panama	Panamanian

이와 같이 첨가되는 자음은 어기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접미사의 일부, 즉, 일종의 부유 접미사(floating suffix)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²⁰⁾ 이와 비슷한 접미사의

19)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경우 국명 어기의 -ia 자체도 본래 국명에 붙는 접미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출현은 다른 지명의 데모님에도 나타나는데(예: Galway→Galwegian, Oslo→Oslovian, Toronto→Torontonian 등), 이러한 현상은 이 자음을 접미사의 일부로 보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준다.²¹⁾

이제 /-an, -ian/ 접미사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ese/ 접미사에 관해 살펴보자. 위의 (2)에 제시된 어휘들을 다시 살펴보고 분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 ~ese을 끝나는 데모님의 유형별 내부 구조와 빈도수

어기 + 접미사	표면형	빈도수
~n	-ese	~nese 12
~l	-ese	~lese 4
~r	-ese	~rese 2
~au	-n+ese	~anese 1
~o	-l+ese	~lese 2
~m	-ese	~mese 1
~ŋ	-ese	~ŋese 1
~o	-ese	~oese 1
~lta	-ese	~ltese 1

합계: 25

총 25건 중 21건은 모두 /n, l, r/ 중의 한 음이 /-ese/ 접미사 앞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8건은 국명 어기의 마지막 자음이 /n, l, r/로 끝나고, 나머지 3건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l/ 또는 /n/을 삽입하여 /-ese/를 붙이는 형식이다. 목록의 마지막에 주어진 두 가지 예외, 즉 *Faroeese*와 *Maltese*만 제외하면 /-ese/ 접미사를 취하는 어기에 음운적인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ese/ 접미사의 하위범주 규정에 다음과 같은 음운적 제약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12) /-ese/의 하위범주 규정: [+동아시아, 붙어권][+공명자음]

지금까지 데모님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접미사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

20) 해당 국명의 어기의 기저형에 특정 자음이 존재하며, 그 자음이 국명에서는 탈락되었다가 데모님 형성시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을 때 나타난다는 식의 추상적인 기저형 설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마오리어의 수동태와 동명사 형성 과정(Hale 1973, McCarthy 1981)의 문제와는 달리, 영어 데모님의 경우에는 극히 국한된 현상으로서 설명력이 없다.

21) 아래에서 다룰 영어 원어인 두 명을 대상으로 한 데모님 형성 조사 결과를 보면 한 피험자가 모음으로 끝나는 지명 뒤에 자음을 첨가한 /-ian/ 접미사를 사용하는데, /u/ 뒤에는 /-vian/을 /a, i, o/ 뒤에는 /-nian/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도 또한 데모님 표면형에 출현하는 자음을 접미사의 일부로 보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능한 음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3.3 영어 데모님 형성에 대한 원어민 대상 실험

본 연구자는 앞에서 제시한 데모님 분석이 어느 정도의 언어적 사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영어 원어민 화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연구자와 같은 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영어 원어민 교수 두 명 (호주인 남성 1명(피험자1), 미국인 여성 1명(피험자2))에게 한국 내의 30개 지명을 주고 각 지명의 데모님을 만드는 조사였다. 조사에 사용된 30개의 도시명은 (10)에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한글과 영어 철자로 된 목록을 피험자들에게 주고 각각의 데모님을 생각해서 말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답을 듣고 표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²²⁾ 또한 조사의 결과를 유형별, 피험자별로 정리한 내용을 <표2>에 제시하였다.

(13) 30개 도시명

고창(Gochang), 광주(Gwangju), 경기(Gyeonggi), 금마(Geumma), 김제(Gimje)
대구(Daegu), 대전(Daejeon), 벌곡(Beolgok), 봉동(Bongdong), 부산(Busan)
부안(Buan), 부여(Buyeo), 삼척(Samcheok), 서울(Seoul), 신탄진(Shintanjin)
안양(Anyang), 웅포(Wungpo), 이천(Icheon), 익산(Iksan), 인천(Incheon)
임실(Imshil), 임피(Impi), 장수(Jangsue), 정읍(Jeongeup), 제주(Jeju)
창원(Changwon), 천안(Cheonan), 포항(Pohang), 함열(Hamyeol), 전남(Jeonnam)

[표2] 영어 원어민 대상 새로운 데모님 만들기 조사 결과

	/-ese/				
	-n+	ŋ/m+	-l+	-V-n+	-V+
피험자1	7	3	3	4	
피험자2	9	3			3
	/-(i)an/				/-i/
	-C+ian	-V-an	-V-C-ian		-l/n+
피험자1	6		7		
피험자2	6	6			3

먼저 /-ese/ 접미사 사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두 피험자 모두 /n/으로 끝나는 지명에 /-ese/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며 피험자1은 모음으로 끝나는 지명에도 4건이나 /n/을 삽입해서 /-ese/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도 /n/ 외의 비음, 또는 /l/과

22) 한국의 도시명은 ‘산’ 또는 ‘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도시명을 택할 때는 되도록 다양한 끝소리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피험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명을 많이 포함하고자 했다.

/-ese/가 사용됨으로써 피험자들의 /-ese/의 예들은 모두 영어 국민명 데모님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ese/의 용법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다. 피험자2는 자음의 경우에는 비음 뒤에서만 /-ese/를 사용한 반면 모음 뒤에도 /-ese/를 붙이는 경우가 3건 있었다.²³⁾

다음에는 /-(i)an/ 접미사의 경우를 보자. 피험자1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의 경우는 물론,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ian/ 접미사를 사용했는데, 모음의 경우에는 앞에 새로운 자음을 넣어서 데모님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u/ 뒤에는 /-vian/을 /a, i, o/ 뒤에는 /-nian/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²⁴⁾ 그러나 /-an/을 이용한 데모님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피험자2의 /-(i)an/ 접미사 사용 분포를 보면 자음 다음에는 /-ian/, 모음 다음에는 /-an/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험자 두 명 모두 /-ese/를 /-(i)an/에 비해서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ese/ 대 /-(i)an/의 비율은 피험자1에서 17:12, 피험자2에서는 15:12의 결과를 보였다. 우리는 앞에서 데모님 접미사들 중 /-(i)an/을 디폴트 접미사로 가정하여 제안하였는데 현 상황은 언뜻 보기에 이 가정과 상충된 결과를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조사에 사용된 지명 30개 중 /-ese/가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명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17건 (/n/-9, /ŋ/-4, /l/-3, /m/-1)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조사에 사용된 시료의 불균형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조사에 사용된 지명이 모두 한국 내의 지명으로서 /-ese/의 하위범주 규정인 [+동아시아]에 속한다는 것도 피험자들로 하여금 /-(i)an/보다는 /-ese/ 접미사를 선호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분석에 앞서 더 많은 조사와 실험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²⁵⁾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영어의 국민명을 지칭하는 데모님 형성에 관한 어원적인 특성 및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나아가 형태-음운적인 특성 등의 언어학적인 면까지 두루 살펴보았다. 영어의 국민명 데모님에 사용되는 다양한 접미사들과 그 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데모님 형성 과정들까지 모두 종류별로 나누어 그 빈도수와 각 종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접미사의 어원과 의미, 하위범주 규정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영어 어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에게 영어 형태론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3) 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겠지만 피험자2의 결과를 /-ese/에 반영한다면 앞에서 정한 /-ese/의 음운적 하위범주 규정을 공명자음에서 공명음으로 확대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24) 단순한 실수인지는 몰라도 피험자1은 /u/ 뒤에도 /-nian/을 사용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다.

25) 영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함께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조사를 수행했으나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조사 결과에서는 이렇다 할 일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 Dickerson, P. 2006. *Labels for Locals: What to call people from Abilene to Zimbabwe*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s
- Hale, K. 1973. Deep-surface canonical disparities in relation to analysis and change: An Australian example. In T. Sebeok, ed.,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11, pp.401-458. The Hague: Mouton.
- Kim, G-R. 2006. Suffix-centered allomorphy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2(2), pp.265-281.
- Lapointe, S. G. 1999. Stem selection in OT. In Booij, Geert & Jaap van Marle, eds., *Yearbook of Morpholog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263-297.
- Lee, Y. 2008. Allomorphy in Korean noun particles: Multiple inputs and default allomorph. *Korean Linguistics* 14, pp.65-89.
- McCarthy, J. 1981. The role of the evaluation metric in the acquisition of phonology. In C. L. Baker and J. J. McCarthy, eds., *The Logical Problems of Language Acquisition*. 218-248.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McCarthy, J. and A. Prince. 1993.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nd Rutgers University.
- Prince, A. and P.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Tesar, B. and P. Smolensky. 1998. Learnability in optimality theory. *Linguistic Inquiry* 29, pp.229-268.

참고 웹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Demonym>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adjectival_and_demonymic_forms_of_place_names

<http://www.oed.com/>

부록26)

<영어 국가명 및 국민명 데모님>

국가명	국민명(단수형)
Abkhazia	Abkhazian
Afghanistan	Afghan
Albania	Albanian
Algeria	Algerian

26) 이중데모님의 경우는 '/'로 표시하였는데, '/' 뒤에 괄호 안에 데모님을 표시한 것은 두 민족 또는 국가가 합쳐서 한 국가가 된 경우로서 각각의 국명을 이용하여 데모님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중데모님이기는 하나 형태에 따라 종류를 나눌 때는 동일한 데모님의 종류에 속하는 경우 한 개의 데모님으로 계산하였음을 의미한다.

American Samoa	American Samoan
Andorra	Andorran
Angola	Angolan
Anguilla	Anguillan
Antigua and Barbuda	Antiguan/(Barbudan)
Argentina	Argentine/Argentinian
Armenia	Armenian
Aruba	Aruban
Australia	Australian
Austria	Austrian
Azerbaijan	Azerbaijani/Azeri
Bahamas	Bahamian
Bahrain	Bahraini
Bangladesh	Bangladeshi
Barbados	Barbadian
Belarus	Belarusian
Belgium	Belgian
Belize	Belizian
Benin	Beninese
Bermuda	Burmudian/Bermudan
Bhutan	Bhutanese
Bolivia	Bolivian
Bosnia and Herzegovina	Bosnian/(Herzegovinian)
Botswana	Botswanan
Brazil	Brazilian
British Virgin Islands	British Virgin Islander
Brunei	Bruneian
Bulgaria	Bulgarian
Burkina Faso	Burkinabe
Burundi	Burundian
Cambodia	Cambodian
Cameroon	Cameroonian
Canada	Canadian
Cape Verde	Cape Verdean
Cayman Islands	Caymanian
Central African Republic	Central African
Chad	Chadian
Chile	Chilean
China	Chinese
Christmas Island	Christmas Islander
Cocos Islands	Cocos Lslander
Colombia	Colombian
Comoros	Comorian
Congo	Congolese
Cook Islands	Cook Islander

Costa Rica	Costa Rican
Côte d’Ivoire	Ivorian
Croatia	Croatian/Croat
Cuba	Cuban
Cyprus	Cypriot
Czech Republic	Czech
Denmark	Dane
Djibouti	Djiboutian
Dominica	Dominican
Dominican Republic	Dominican
East Timor	Timorese
Ecuador	Ecuadorian
Egypt	Egyptian
El Salvador	Salvadoran
England	English
Equatorial Guinea	Equatorial Guinean
Eritrea	Eritrean
Estonia	Estonian
Ethiopia	Ethiopian
Falkland Islands	Falkland Islander
Faroe Islands	Faroese
Fiji	Fijian
Finland	Finn
France	French
French Guiana	French Guianese
French Polynesia	French Polynesian
Gabon	Gabonese
Gambia	Gambian
Georgia	Georgian
Germany	German
Ghana	Ghanaian
Gibraltar	Gibraltarian
Great Britain (or UK)	Briton
Greece	Greek/Grecian
Greenland	Greenlander
Grenada	Grenadian
Guadeloupe	Guadeloupian
Guam	Guamanian
Guatemala	Guatemalan
Guinea	Guinean
Guyana	Guyanese
Haiti	Haitian
Honduras	Honduran
Hong Kong	Hongkonger/Hongkongese
Hungary	Hungarian

Iceland	Icelander
India	Indian
Indonesia	Indonesian
Iran	Iranian
Iraq	Iraqi
Ireland	Irish
Isle of Man	Manx
Israel	Israeli
Italy	Italian
Jamaica	Jamaican
Japan	Japanese
Jordan	Jordanian
Kazakhstan	Kazakhstani/Kazakh
Kenya	Kenyan
Kiribati	i-Kiribati
Korea	Korean
Kosovo	Kosovan
Kuwait	Kuwaiti
Kyrgyzstan	Kyrgyzstan/Kyrgyz
Laos	Laotian
Latvia	Latvian
Lebanon	Lebanese
Lesotho	Basotho
Liberia	Liberian
Libya	Libyan
Liechtenstein	Liechtensteiner
Lithuania	Lithuanian
Luxembourg	Luxembourger
Macau ²⁷⁾	Macanese/(Chinese)
Republic of Macedonia	Macedonian
Madagascar	Malagasy
Malawi	Malawian
Malaysia	Malaysian
Maldives	Maldivian
Mali	Malian
Malta	Maltese
Marshall Islands	Marshallese
Martinique	Martiniquai
Mauritania	Mauritanian
Mauritius	Mauritian
Mayotte	Mahorai
Mexico	Mexican
Micronesia	Micronesian

27) 영어사전에서는 'Macao'로 표기되며 발음은 [ma.cau]이다.

Moldova	Moldovan
Monaco	Monacan
Mongolia	Mongolian/Mongol
Montenegro	Montenegrin
Montserrat	Montserratian
Morocco	Moroccan
Mozambique	Mozambican
Myanmar	Myanmarese
Namibia	Namibian
Nauru	Nauruan
Nepal	Nepalese
Netherlands	Dutch
Netherlands Antilles	Dutch Antillean
New Caledonia	New Caledonian
New Zealand	New Zealander
Nicaragua	Nicaraguan
Niue	Niuean
Niger	Negerien
Nigeria	Nigerian
Norway	Norwegian
Northern Ireland	Northern Irish
Northern Marianas	Northern Marianan
Oman	Omani
Pakistan	Pakistani
Palestinian territories	Palestinian
Palau	Palauan
Panama	Panamanian
Papua New Guinea	Papua New Guinean/Papuan
Paraguay	Paraguayan
Peru	Peruvian
Philippines	Filipino
Pitcairn Island	Pitcairn Islander
Poland	Pole
Portugal	Portuguese
Puerto Rico	Puerto Rican
Qatar	Qatari
Republic of Ireland	(Southern) Irish
Réunion	Réunionese
Romania	Romanian
Russia	Russian
Rwanda	Rwandan
St. Helena	St. Helenian
St. Kitts and Nevis	Kittitian/(Nevisian)
St. Lucia	St. Lucian
Saint-Pierre and Miquelon	Saint-Pierrai/(Miquelonnai)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t.) Vincentian
Samoa	Samoan
San Marino	Sammarinese
São Tomé and Príncipe	São Toméan
Saudi Arabia	Saudi/Saudi Arabian
Scotland	Scot
Senegal	Senegalese
Serbia	Serbian
Seychelles	Seychellois
Sierra Leone	Sierra Leonean
Singapore	Singaporean
Slovakia	Slovak
Slovenia	Slovenian/Slovene
Solomon Islands	Solomon Islander
Somalia	Somali
South Africa	South African
south Ossetian	South Seetian
Spain	Spaniard
Sri Lanka	Sri Lankan
Sudan	Sudanese
Surinam	Surinamer
Swaziland	Swazi
Sweden	Swede
Switzerland	Swiss
Syria	Syrian
Taiwan	Taiwanese
Tajikistan	Tajikistani/Tajik
Tanzania	Tanzanian
Thailand	Thai
Togo	Togolese
Tonga	Tongan
Trinidad and Tobago	Trinidadian/Tobagonian
Tunisia	Tunisian
Turkey	Turk
Turkmenistan	Turkmen
Turks and Caicos Islands	Turks and Caicos Islander
Tuvalu	Tuvaluan
Uganda	Ugandan
Ukraine	Ukrainian
United Arab Emirates	Emirati/Emirian
United States of America	American
Uruguay	Uruguayan
Uzbekistan	Uzbekistani/Uzbek
Vanuatu	ni-Vanuatuan
Venezuela	Venezuelan

Vietnam	Vietnamese
Virgin Islands	Virgin Islander
Wales	Welsh
Wallis and Futuna	Wallisian/Futunan
Western Sahara	Sahrawi
Yemen	Yemeni
Zambia	Zambian
Zimbabwe	Zimbabwean

이보림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brlee@wonkwang.ac.kr

접수일자: 2009. 11. 16
수정일자: 2009. 12. 10
게재일자: 2009. 12. 21